

바닷속에 버려진 분홍빛 어망, “핑크버블”

“이제 난 쓸모없어...”

슬퍼하던 그때, 바다를 지키는 거북이 ‘오’가 나타났어요!

바다의 쓰레기를 척척!

효성티앤씨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난 핑크버블!

이제는 바다를 지키는 멋진 영웅이 되었답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귀엽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하며,
‘순환’과 ‘변화’의 가치를 함께 배워보세요.

거북이 오와 핑크버블의 바다약속

HYOSUNG TNC X OHMYEARTH

거북이 오와 핑크버블의 바다약속

글·그림 오마이어스



가격 19,000원

HYOSUNG TNC X OHMYEARTH



QR코드를 찍으시면 AR동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



핑크버블

한때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태어난 플라스틱 어망.
하지만 쓰임이 끝나 바다에 버려져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버려지는 폐어망을 활용하여 만든
효성티앤씨의 리사이클 실 '리젠 오션 나일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거북이 오

넓고 깊은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버려진 어망,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다친구들을 살피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주인공.
핑크버블과 함께 바다를 지키는 멋진 영웅이에요.

글·그림 오마이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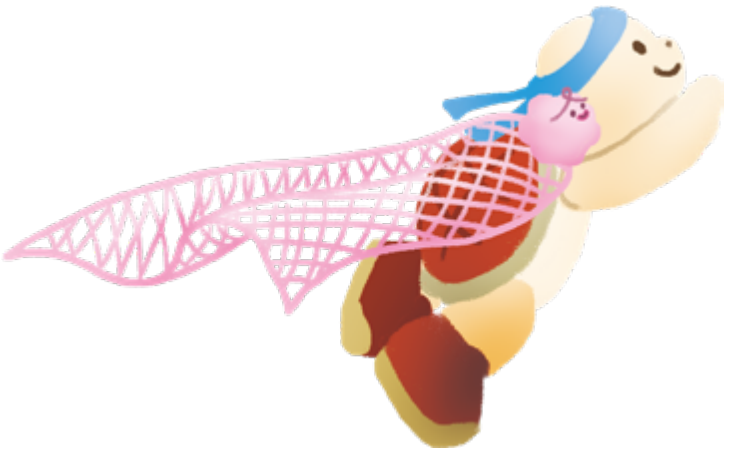
오마이어스(Oh my earth)는 기후·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효성티앤씨(주)

효성티앤씨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지속가능한 섬유 소재를 만드는 글로벌 섬유 기업입니다.

거북이 오와 핑크버블의 바다약속

글·그림 오마이어스



거북이 오와 핑크버블의 바다약속

글·그림 오마이어스

퍼낸곳 오마이어스 출판등록 제2023-000112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2-1 삼우빌딩 2층 tel. 02) 2268-0422

ISBN 979-11-994522-0-6

Copyright © 2025, Oh My Earth Co.,Ltd.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오마이어스에게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사전동의 없이 무단 복사, 수정,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 거북이 ‘오’는 다양한 바다 친구들이 살고 있는 바다숲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늘 시끌벅적하던 바다숲이 조용하고 친구들은 불안해 보였어요.



“‘오’야, 도와줘! 바다숲에 이상한 게 걸려있어!”

작은 물고기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거북이 ‘오’는 서둘러 바다숲 깊숙이 헤엄쳐갔죠.



잘피*들 사이에 엉켜 있는 건 바로 버려진 핑크빛 어망이었어요.
그건 한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핑크버블 어망이었죠!



잘피: 잘피는 바닷속에서 자라는 풀로, 꽃도 피우는 바다 식물입니다.
바다숲은 물고기와 해양생물의 집이 되며,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지구를 시원하게 지켜줍니다.

“사람들이...날 버리고 갔어.”

핑크버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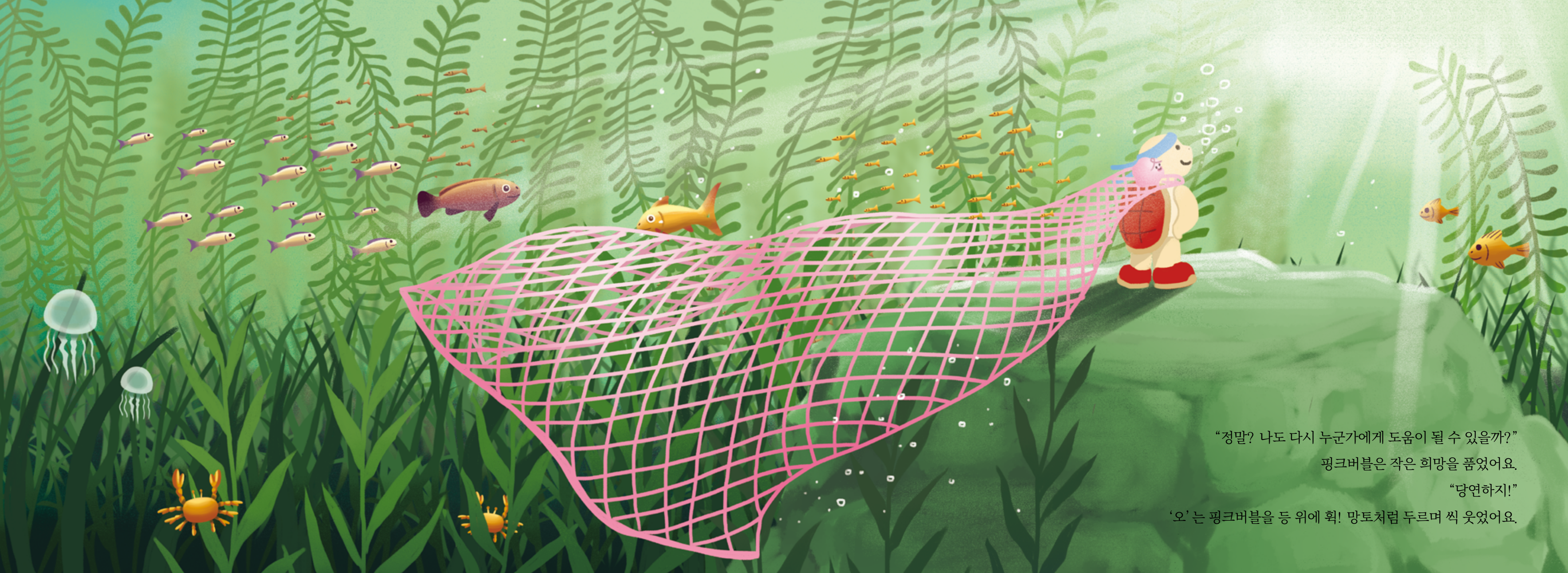
“예전엔 나를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거북이 ‘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핑크버블을 잘피에서 풀어냈어요.

“너는 아직 꼭 필요한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나도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핑크버블은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당연하지!”

‘오’는 핑크버블을 등 위에 휙! 망토처럼 두르며 씩 웃었어요.

“자, 이제 육지로 가자!”

‘오’는 핑크버블을 태운 채 힘차게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헤엄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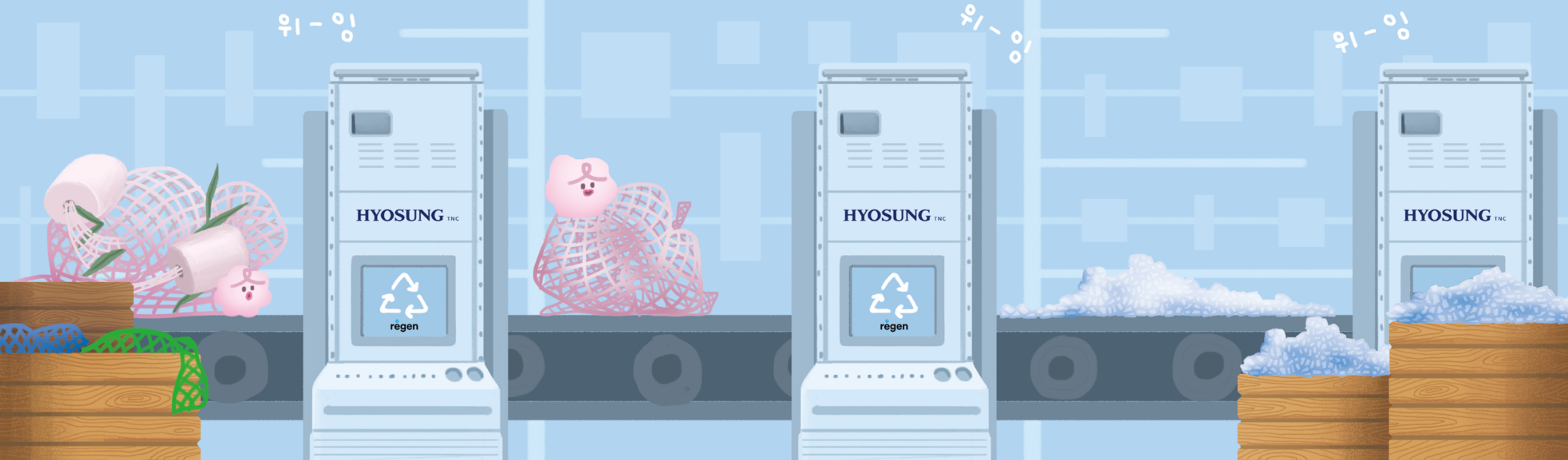
그때 바닷속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던 잠수부가 ‘오’와 ‘핑크버블’을 발견했어요.

“어? 거북이가 어망에 감겨 있어!”

“빨리 도와주자!”

잠수부는 조심히 다가가 핑크버블을 풀어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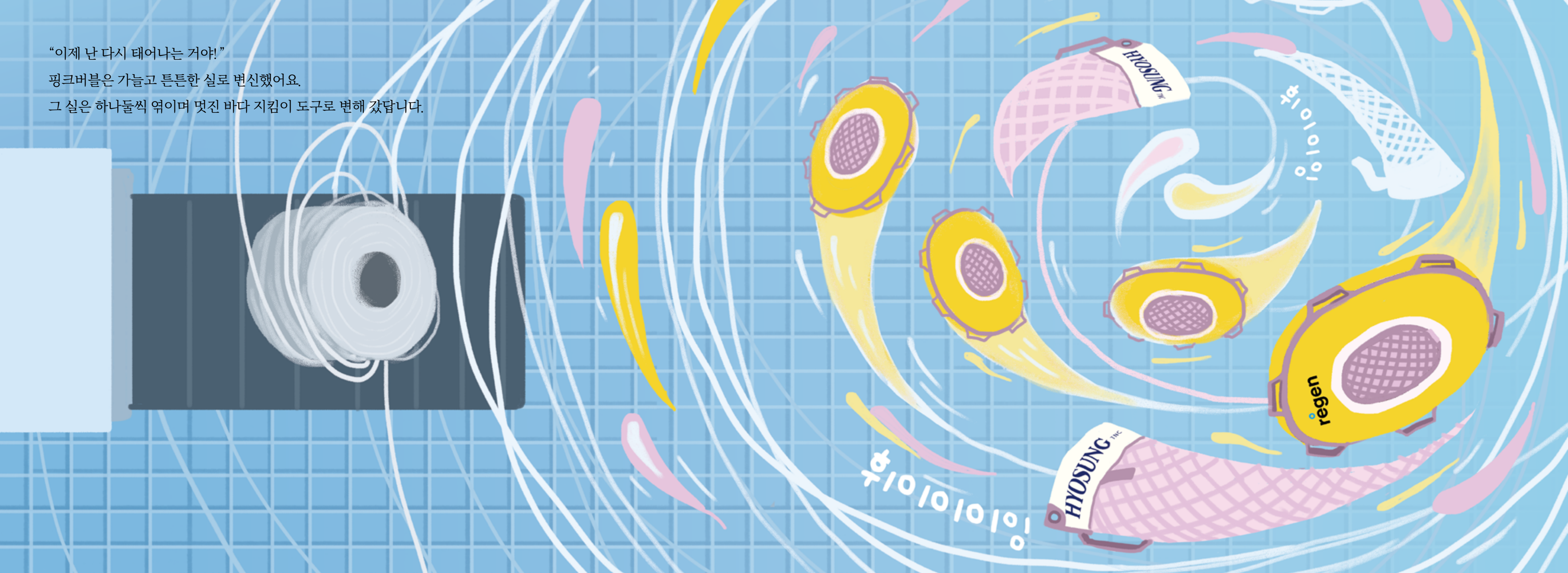
핑크버블은 효성티앤씨 공장으로 보내졌어요.
깨끗하게 씻기고, 작게 잘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준비를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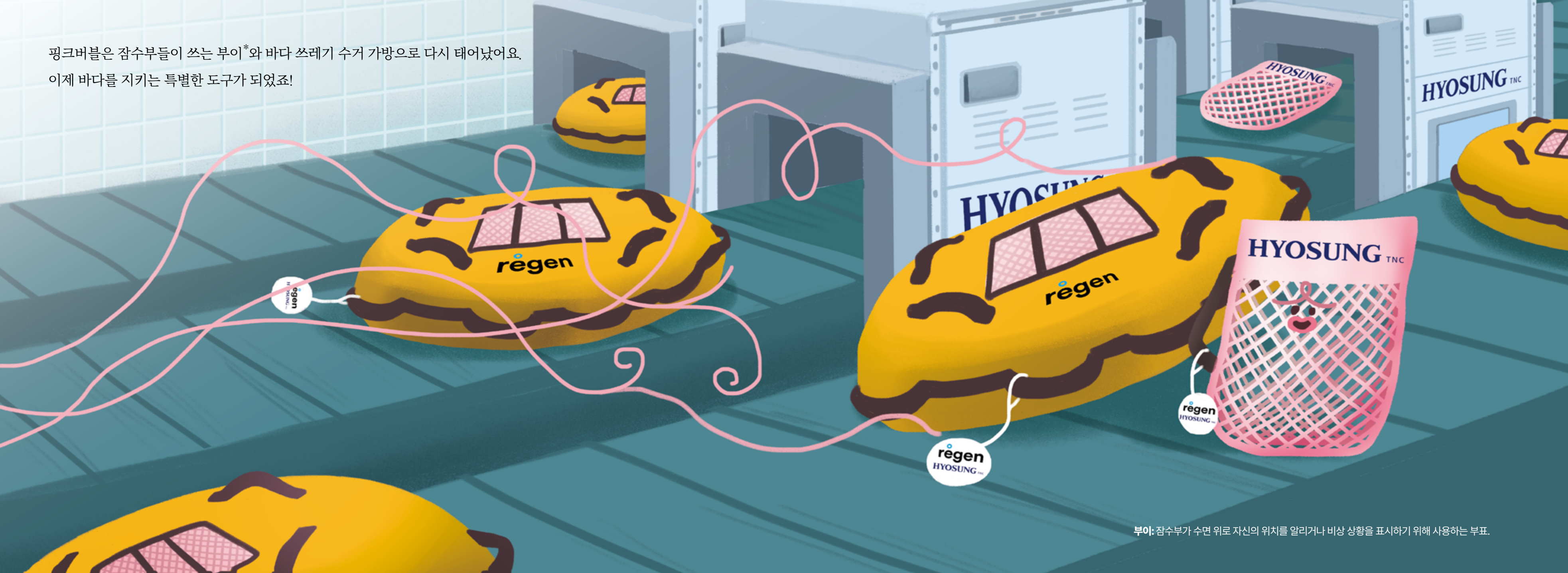
“이제 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핑크버블은 가늘고 튼튼한 실로 변신했어요.

그 실은 하나둘씩 엮이며 멋진 바다 지킴이 도구로 변해 갔답니다.



핑크버블은 잠수부들이 쓰는 부이*와 바다 쓰레기 수거 가방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바다를 지키는 특별한 도구가 되었죠!



부이: 잠수부가 수면 위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비상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표.

다시 바다로 돌아온 핑크버블은 잠수부들과 함께 바다 친구들을 도왔어요.

이번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잘피에 걸린 그물도, 산호에 감긴 쓰레기도 핑크버블 가방 속으로 쓱쓱 들어갔어요!



바다숲 친구들이 말했어요.

“바다를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핑크버블!”

‘오’는 멀리서 웃으며 말했죠.

“넌 바다를 지키는 영웅이야!”

핑크버블은 살짝 부풀며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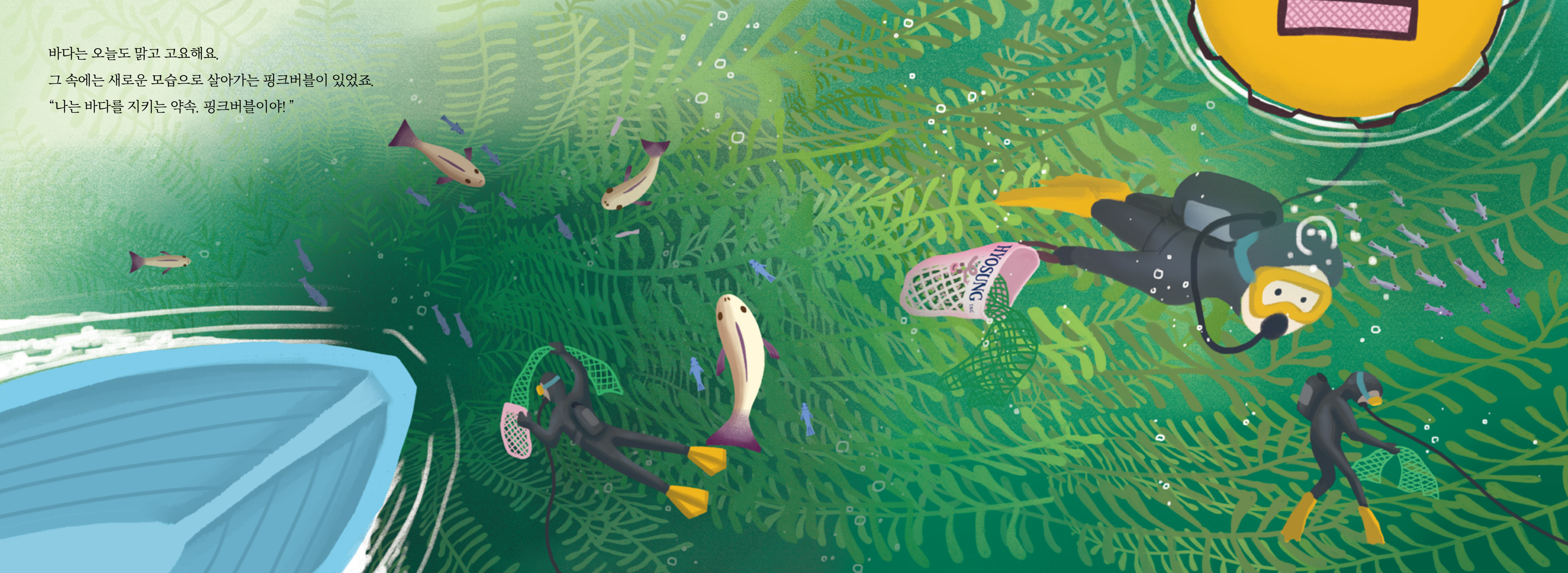
“이제 바다 쓰레기는 나에게 맡겨줘!”



바다는 오늘도 맑고 고요해요.

그 속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핑크버블이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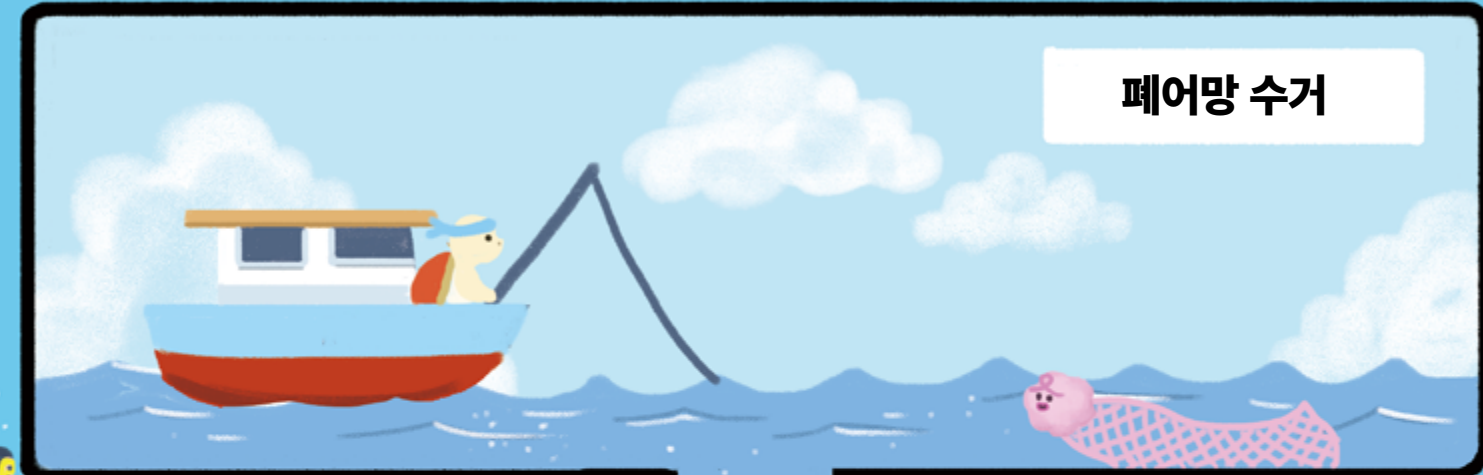
“나는 바다를 지키는 약속. 핑크버블이야!”



리젠 오션 나일론(regen Ocean Nylon)

효성티앤씨의 '리젠 오션 나일론(regen Ocean Nylon)' 은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망을 활용하여 만든 리사이클 실입니다.

폐어망 수거



세척, 분해



칩



부이와 채집망 완성!



화학적 재사용

실



